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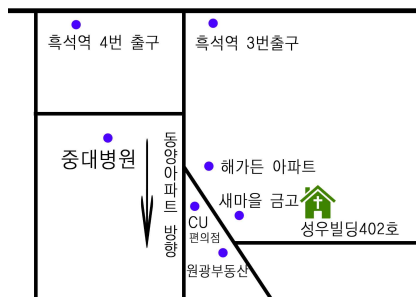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 스 더 회 오후 1: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 금 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3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80 서울 동작구 서달로8가길 9 성우빌딩 402호 (흑석동 95-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음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64장 (통일찬송가 13장)
교 독 문		교독문 18번(시편 31편)
찬 양 과 경 배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
예 배 기 도		한배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갈라디아서 2장 11~14절
설 교		베드로의 외식 (임춘배 담임목사)
헌 금 드 림		이태수 이호재 정영기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종교와 성에 대한 죄와 형벌 (레위기 20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위원회 모임	오늘 오후 3시 교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 건축위원회 모임	오늘 오후 3시 30분 교회 사무실에서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 산 기 도	일시 : 6월 6일(화) 11시 장소 : 청계산 기도원 교회 사무실에서 9시 30분에 봉고 운행이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4. 성경 암 송 대 회	일시 : 6월 25일 주일 범위 : 2017년 성경암송구절 프린트 앞면 방법 : 작년과 동일하게 시험 형식
5.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6.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안양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상도셀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6월 첫째주 범위						
6/5	6/6	6/7	6/8	6/9	6/10	6/11
	레위기 18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20장	레위기 21장	레위기 22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찬송 :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통 376)

본문 : 창세기 44장 1~6절

말씀 :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고 하자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했습니다(2절). 그뿐 아니라 형제들을 쫓아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며 형제들의 짐 속에서 은잔을 찾아 추궁해 다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행합니다. 이 청지기 정말 탐납니다. 43장에도 이 청지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요셉의 명대로 하여’(43:17)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자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43:23) 이 말씀에서처럼 형제들이 두려워 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재정의 문제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물론 요셉의 지시가 있었겠지만 한 나라의 총리 집 청지기라면 어느 정도 권력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의 지시에 단 한 번도 토를 단다거나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재물을 주는 것도, 양식을 그것도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주는 것도, 은잔을 자루에 넣으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쫓아가서 도둑으로 몰아 다시 잡아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요셉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오자 요셉은 베냐민만 내버려두고 다른 형제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가족 이야기며 아버지 이야기, 지금까지의 사연들과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하고 차라리 자기가 대신 머물겠노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눈물이 났습니다. 원망과 함께 고마웠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삶도 내어 주는 형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유다가 노년에 얻은 아들을 다시 잃을까, 아버지의 죽음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형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확신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란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확신을 주었습니까. 유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꾸밈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솔직함이 방법입니다. 그 솔직함이 요셉의 마음에 확신을 준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베드로의 외식 (갈2:11-14)

서론

바른 복음을 수호하고 실천하려는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본론

1.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하는 바울

- (1)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앉아 식사하며 교제함
- (2)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파송된 어떤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감
- (3) 바나바를 비롯한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물러감
- (4) 이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함
- (5) 이것은 복음의 왜곡을 막고 교회를 진리위에 굳게 세우려는 바울의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교훈

- (1)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
- (2)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 (3) 지도자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한다.

결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예배기도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한배선 장로	조운익 장로
헌금위원	이태수 이호재 정영기	이태수 이호재 정영기
안내	안양셀	상도셀

매일 성경 강독		금해야 할 가나안의 풍습들	날짜 : 6월 5
찬양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가 350장/통일 찬송가 393장)		
통독	레위기 18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 각 사람은 자기 살붙이, 곧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 자매, 손녀(외손녀), 고모(이모),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형제의 아내 등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된다. 부적절한 성관계,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동성애, 짐승과의 성관계 등으로 자기 자신과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은 이런 악행들로 인해 징벌을 받았다. 만일 이스라엘도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생각해보기			
1	택한 백성의 성적 순결 (1) 이방인들의 타락된 풍습을 좇지 말라. (2) 근친상간과 부도덕한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 금지 (3)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왜곡 시키지 말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		
2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1)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26) (2)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29) (3) 추잡하고 문란한 세상 풍속이 무엇인지 깨닫고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성별된 삶을 살아가자.		
핵심 단어	18:4 나의 규례를 지켜(בְּחֻמֹּתַי וּבְנִשְׁבָּעַי, 웨에트 후코타이 티쉬메루): ‘나의 규례’에 해당하는 ‘후코타이’는 ‘후카’의 복수형 ‘후코트’에 1인칭 단수 접미어가 붙은 형태이다. 이처럼 동일한 단어를 이방인들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나타내는 말로 함께 사용한 것은 이 두 규례 사이에 존재하는 극명한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대조하기 위함이다. 즉 이방인들의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국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한편 ‘지키다’로 번역된 ‘티쉬메루’의 기본형 ‘좌마르’는 ‘행하다’란 뜻을 지니며 실천을 강조하는 동사 ‘아사’와는 다르게 계명이나 명령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부각시키는 동사이다. 하지만 ‘아사’와 ‘좌마르’는 근본적으로 서로의 의미를 보완해 주며 함께 짝을 이루어 ‘지켜 행하다’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이나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 체계를 수용할 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곧바로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양 생각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있다. 불변의 진리만이 우리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반면 가변적인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자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과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탐심 대신 만족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마지막 날에 / 불길 같은 주 성령 (184장/통 173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새찬송가 391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384장) 등 한국 교회가 애창하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것으로 유명한 화니 J. 크로스비 여사는 1875년에 태어나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잘못된 시술로 눈에 이상이 생겨 실명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녀가 11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도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화니 여사는 30세에 교회 집회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143장) 찬송을 들은 뒤 삶이 변화했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531장) 찬송시를 처음 작사했습니다. 이후 무료로 눈 수술을 해주겠다는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화니 J.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시각 장애인으로 살면서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의 만족과 충만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여 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편인가요, 영의 충만을 구하는 편인가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11:24~35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계속되는 백성의 요구에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탐욕을 품은 백성에게는 메추라기를 차고 넘치게 보내 주십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이 사이에 가득 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백성의 울부짖음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탐욕의 무덤에 갇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탐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 주시나요? 또 어떻게 징계하시나요?	
적용하기	탐욕 혹은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탐욕을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말은 일이 힘겨워 낙심될 때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제 안에 탐심이 싹들 때 ‘탐욕의 무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자족으로 탐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성물을 먹는 규례	날짜 : 6월 9일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찬송가 213장/통일 찬송가 348장)		
통독	레위기 22장		
본문 내용	아론과 그 자손 중에 몸을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어선 안 된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정결하게 된 후에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는 해가진 후에 먹는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으며, 부지중에 먹은 경우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준다. 예물을 드릴 때 흙 없는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짐승이 새끼를 낳은 경우 7일간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이후부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감사 제물을 드린 후 그 제물은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야 한다.		
생각해보기			
1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 (1)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2) (2)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더럽게 된 자는 정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 것 (3) 부정한 것을 먹은 자는 성물을 먹지 말 것 (4) 제사장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함 (5) 성물에 대해 경외감을 갖고 자신의 순결에 힘써야 한다.		
2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1) 기쁘게 받으심(열납)이 되도록 드리라. (2) 흙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 (3)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이방 관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라). (4)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핵심 단어	22:16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עֲשֵׂהְךָ קֹדֶשׁ יְיָ אֱלֹהֶיךָ, 키 아니 예호와 메캇데솅):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으로 번역된 '메캇데참' 은 '거룩하다'란 뜻의 '카다쉬' 의 강의형 분사에 복수 접미어가 결합된 말이다. 분사형으로 쓰여진 것은 현재 진행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본문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복수+접미어가 가리키는 자는 앞서 언급 되었듯이 제사장의 집안 식구가 아니면서도 그 집안에 거하는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 가야 한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그들이 부지중에 성물에 대한 죄를 지었지만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는 의미이다.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살피는 세심함을 가져야 하며, 부지중에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더라도 다른 길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거룩함으로의 명령	날짜 : 6월 6일
찬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통일 찬송가 512장)		
통독	레위기 19장		
본문 내용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화목제물이 셋째 날까지 남은 경우 불사르고,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남기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웃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품꾼의 삯을 미루면 안 된다. 공의로 재판하며,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가족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한 남자는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 과목을 심은 경우 3년간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4년째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는다, 점이나 술법, 머리 가를 둥글게 미는 것, 문신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사랑하며,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해야 한다.		
생각해보기			
1	택한 백성의 선한 생활 (1)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2)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3) 신상(우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4)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5)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6)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 (7)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8) 공의로 재판하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9)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 기타 규례들		
핵심 단어	19:2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קְדוֹשׁ אֱלֹהֵינוּ, 키 케도쉬 엘로헤우): '나 여호와... 거룩함이니라' 로 번역된 '키 카도쉬 아니 예호와' 에는 동사가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원문이 동사가 생략된 문장이란 사실은 여호와의 거룩함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거룩' 의 본질이란 사실을 강조해 준다. 정녕 온 우주에서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한편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너희는 거룩하라' 란 명령에는 '~이다', '~이 되다' 란 뜻을 지닌 '하야' 동사의 미완료 2인칭 복수형인 '티호유' 가 쓰였으며, 따라서 '케도 쉬 티호유' 는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란 뜻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더이상 거룩하실 수 없는 거룩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은 생동력을 가지고 밖으로 분출되며 그분이 임재 하는 곳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조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이어 받은 인간으로서 그 본질이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신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거룩을 체험함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종교와 성에 대한 죄와 형벌		날짜 : 6월 7일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통일 찬송가 415장)			
통독		레위기 20장			
본문 내용		누구든지 지식을 몰렉에게 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것을 본 사람이 못 본 체한 경우, 그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모두 죽어야 한다. 동성애자나 짐승과 성관계를 갖는 자도 죽어야 한다. 이모나 숙모 등 살붙이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또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로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기					
1		신앙의 순결을 범한 자들 (1)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2) 접신한자와 박수무당을 따른 자는 반드시 죽이라. (3)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26)			
2		육적 순결을 범한 자들 (1)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2)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3) 근친상간 자는 반드시 죽이라. (4) 동성연애자는 반드시 죽이라. (5)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핵심 단어		20:3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וְהַכֹּהֵן יִשְׁמַח בְּמִלְכָּתוֹ, 웨히크랏티 오토 믹케 레브):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로서 모세 오경에서 매우 자주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문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이다. 즉 창 17장에 나타난 이 문구는 본문의 문구와 자구적으로 완전히 일치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이유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할례 언약을 배반(파기)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고 끊쳐지는 형벌을 당하게 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해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의 내용은 그들을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언약의 표징 곧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여호와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지킬 규례들을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규례들 역시 근본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곧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다. 본문의 화목제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희생 제물의 고기 취식에 관한 규례를 어긴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언약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언약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곧 온전한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제사장들의 거룩	날짜 : 6월 8일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통일 찬송가 94장)		
통독	레위기 21장		
본문 내용	제사장들은 부모나 자녀, 형제 등이 죽은 경우를 제외하고 죽은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백성의 어른임을 기억해 거룩한 외모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선 안 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대제사장은 관유로 부음 받고 예복을 입은 거룩한 자다, 부모의 시체조차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성소를 지켜야 하며, 처녀 중에서 아내를 맞아야 한다. 그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은 먹지만,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생각해보기			
1	제사장의 정결 규제 (1)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2)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3)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4)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이나 제단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 (5)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6)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 단어	21:7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וְהָיָה קֹדֶשׁ, 키 카도쉬 후 레로하 이우): 본문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기'로 시작하여서 제사장의 결혼에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본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레로하이우' 즉 '그의 하나님께'란 표현이다. 한글 성경은 '그의'란 대명사 접미어에 대한 번역을 생략했으며 또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꾸어서 번역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하나님께'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그가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다르게 '그의 하나님'의 율례만을 따르는 제사장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다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거룩하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입게 되었으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자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장이 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무수한 가치 기준에 우선하여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향할 때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